

내년말 전세계 인플레이션 2% 회복 정상화 전망

식량·에너지 하락·통화 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 빠르게 하락 내년 4분기 물가지수 미국 2.2% 전망... 금리 인하 발판 마련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내년 연말께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유럽, 일부 신흥국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11월 말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연 2.2%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던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떨어진 것으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릴 정도다.

골드만삭스는 내년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이틀 국가 인플레이션이 2%를 회복할 것으로 봤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

럽중앙은행(ECB), 영국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모두 2%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가계 구매력이 강화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손더스 수석고문은 내년 4분기 인플레이션이 유럽에서는 1.3%, 영국에서는 2.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기준 2.2%로 전망했다. 이 지수는 올해 11월 2.6%였다.

영국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출신의 손더

스 고문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공통적 요인은 식량과 에너지, 글로벌 상품 가격의 하락과 통화 정책이지만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둔화하는 이유는 미국과 영국이 그동안 탄탄한 노동시장의 압력을 받아왔는데, 이 압력이 천천히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3년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2021년에는 각국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으로 수요가 증가한데다 공급망 문제가 있어 상품 가격이 급등했다.

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상품 가격을 더 부추겨 물가 상승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된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월 10.6%로 정점을 찍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노동력 수요가 늘어 임금이 급격히 올랐으며, 이는 서비스 가격 상승으

로 이어졌다.

주거비 상승도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미국의 올해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지만, 주거비를 제외하면 1.4% 상승에 그쳤다. 자가주거 거주비를 물가지수 구성항목에 넣지 않는 유럽은 주거비 상승률이 높지 않다.

이런 물가 상승 요인은 점차 안정되는 추세다. 주요국 임금 상승률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시기와 영향은 국가마다 다를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BCA 리서치의 피터 베레진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미국에서는 이미 신규 노동력 유입으로 임금 압력이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노동인력 공급은 더딘 상황이다. 이민자 유입이 많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능력을 갖

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두타 팀장은 연준이 시장이 예상하는 6번의 금리 인하보다는 3-4번의 금리 인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면 "하지만 연착륙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경제는 꽤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엔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152건의 각국 중앙은행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BMO 캐피탈 마켓 이코노믹스의 더글러스 포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요국 대부분이 올해보다 내년엔 더 느리게 성장하겠지만 금리 인하와 에너지 및 식량 가격 하락, 공급망 정상화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한여름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 찾은 시민과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크리스마스 모자를 쓴 채 음료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美 대통령 지지율 40% '역대 최하위'

트럼프 전 대통령 44%보다 낮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같은 시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집권 1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3년차 말인 2011년 12월 당시 지지율 46%와 비교해 저조한 수준일 뿐 아니라, 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19년 12월 당시 지지율 4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의 현재까지 지지율 평균은 44%다. 이는 같은 시기 트럼프(44%), 오바마(48%), 조지 W. 부시(48%), 빌 클린턴 전 대통령(56.5%)과 비교해 최하위다.

결과적으로 대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현재 및 전체 평균 모두 지지율 측면에서 스스로 겪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대 '꼴

짜' 성적표를 받아든 형국이다.

내년 대선 리턴 매치가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대결에서도 이 같은 추세는 확인된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이날 기준 전국단위 508개 여론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대결시 각각 43.4%와 45.3%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포인트 우세했다.

최근 몇달간 이어지는 흐름에서 큰 변화가 없는 분위기다.

NBC 방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공화당 경쟁자였던 힐러리에게 이 같은 우위를 허용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NBC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는 점"이라며 "젊은층과 라틴계, 흑인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가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미 대선·인도 총선 등 50개국 선거 줄줄이... 경제 불확실성 증폭

투표행렬에 경제 흔들 변수 속출할 듯

내년에는 두개의 전쟁이 이어지고 50개국에서 대선을 포함한 굵직한 선거가 치러지면서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는 와중에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여기에 미국 대선을 포함해 인도, 멕시코 등 50개국에서 20억명 이상이 투표소로 향하면서 세계 경제를 뒤 흔들는 '변수'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경제 상황을 두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마치 1970년대와 비교하기도 했지만 영국 케임브

리지대 공공정책 교수인 다이앤 코일은 1930년대를 떠올렸다고 NYT는 전했다.

각국 선거에서 분노한 포퓰리스트들이 승리를 따내면 정부를 상대로 무역 규제, 외국인 투자 통제, 이민 장벽 등을 강화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아주 다른 세상'으로 세계 경제를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이 줄어드는 세상은 소득이 줄어드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1930년대 정치 격변, 금융 불균형이 '포퓰리즘·무역 감소·극단적 정치'로 이어졌던 상황과 내년이 비교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내년 치러지는 선거에서 유권자 규모는 세계 경제 생산량의 60%를 차지한다.

규모 면에서 인구 대국인 인도를 포함해 대만, 인도네시아, 남아공, 유럽의회 등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이어진다.

이중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미국 대선으로,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19일 유럽산 철강, 알루미늄과 미국산 위스키, 오토바이에 대한 관세 유예를 미 대선 이후인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고수하는 와중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줄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 때제는 "계속되는 군사 갈등, 점점 악화하는 기상 이변, 동시다발 선거로 2024년에는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일본 검찰, 아베파 '비자금' 수사 속도

핵심인물 4명 조사 마쳐

일본 정치권을 강타한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일본 검찰이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조사하며 전모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19일 아베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전날까지 아베파 핵심 인사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받은 인물은 마쓰노 히로카즈 전 국방장관,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전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 자민당 좌장인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이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줬으며, 이를 계파 정치자금 수치 보고서는 물론 개별 의원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아베파 의원들이 파티권 할당량 초과 판매로 비자금화한 금액은 2018~2022년 5년간 총 5억엔(약 46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파벌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2019년 9월부터 2년간 맡았던 마쓰노 전 장관과 현직 사무총장인 다카기 전 위원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파벌 회계 책임자로부터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대표번호 1644-7990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